



■ 미래형 새 대입제도 탐색④ : 'IB' 도입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2019.5.20.)

## IB 교육과정 평가 결과, 좋음 10개, 보통 8개, 좋지 않음 11개로 밝혀졌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IB 도입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IB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단체의 IB 종합 분석 결과를 내놓음.
- ▲IB에 대한 평가를 할 때 △IB 도입의 문제의식 타당성, △도입 이전 예상되는 4요소 문제점 점검, △교육과정의 적절성, △소요 재정의 적절성, △부작용 없는 현실 안착 가능성, △IB에서 KB로 전환 가능성 등 6가지 기준 설정함.
- ▲【학점평가】 6가지 기준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총 29개 지표로 나누어 학점을 매겨본 결과, A등급 7개, B등급 3개, C등급 8개, D등급 9개, E등급 2개로 평가됨.
- ▲【주요평가】 IB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선결 조건 4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3단계 즉 △시범운영 단계, △제도화 1단계(IB가 현 대입제도의 한 전형으로 적용될 경우), △제도화 2단계(현 대입제도가 국가 논술 시험 KB로 완전 대체되는 단계)로 나누어 평가해야함.
- ▲제도화 1단계를 시도할 경우 1,2,4요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함.

- 1요소 - 입시 경쟁 심화 여부 : 시범 단계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IB가 현 대입제도의 한 전형으로 들어오는 제도화 1단계에서는 일부 특권학교가 생기면서 고입 경쟁이 심화되고 대입 과정의 복잡성이 심화됨.
- 2요소 - 사교육 추가 유발 여부 : 제도화 1단계에서 기존 고입 사교육에 새로운 IB형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 부담이 추가되며, 영어 몰입 교육에 따른 영어 사교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KB 단계에서는 대입 영어 시험이 영어 논술형으로 전환됨으로 한편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키워지면서 동시에 영어 사교육 부담도 지금보다는 커질 것임.
- 3요소 - 무의미한 학습 부담 가중 염 :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현재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

기 위해 내신 대비와 함께 IBO 주관의 외부시험을 준비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높아질 것임. 제도화 단계에서는 학습의 부담은 현재와 동일할 것이나, 학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4요소 - 특권학교 트랙→ 교육양극화 심화 여부** : 시범 단계에서는 때 특권학교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으나 재력 있는 사학의 IB 교육과정 채택 확산 정도에 따라 특권학교 트랙 부상 가능성이 있고, 2단계에서는 일부 사립학교 등의 대거 IB학교로의 전환으로 새로운 특권학교 고착 가능성이 매우 큼. 3단계 즉 기존 대입제도가 국가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모든 고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권교육을 통한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음.

▲ **【종합평가】 위의 내용을 종합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나 IB의 교육철학 자체 및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타당함.
- 교육청이 시범 운영 형태로 지원하는 소요 재정 역시 큰 문제없음.
- IB는 외국의 글로벌 교육과정인데 한국의 국적있는 교육과정(한국사, 지리, 세계사, 국어 등)의 필요와 충돌되는 것의 여부는 충돌되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도입 이전 예상되는 문제 관련 4대 선결 요소 관련해서는 IB가 현재 대입제도의 한 트랙으로 인정되는 순간 1, 2, 4 요소 관련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기에 현행 대입 전형의 새 트랙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 논술 시험(KB) 재편을 서둘러야함.
- IB 핵심은 교사교육이지만, 짧은 시간의 교원 연수로 주입식 암기교육에 익숙한 교사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총체적 교사 변화의 새 전략이 필요함.
- 현행 수능 체제를 논술형 국가시험(KB)으로 대체해야 여러 부작용을 줄이며 IB의 교육적 의미를 얻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함.

▲ **토론자의 의견: 현 대입고사를 국가논술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체로 동의, 다만 IB를 통한 이행 전략에는 찬반이 엇갈림.**

- 이해정 교육과정혁신연구소 소장 : 그동안의 수백회의 토론회 중 가장 진정성과 노력이 느껴지는 발제였다고 평가하면서, 사교육걱정에서 우려하는 지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KB로의 전환 문제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 평가함.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국가시험이 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다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적한 제도도입의 선결 과제 등 지적 사항은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함.
-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도입에 대한 사교육걱정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KB의 도입은 IB 시범 도입 과정이 없어도 가능하며, 교육개혁을 외국의 교육제도에서 이식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함.
- 고영실 제주교육청 장학사는 IB 도입에 따른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윤준 대구교육청의 장학사는 교육청의 도입과정에서 특권학교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 밝힘.

▲우리는 상세 분석의 과정을 거친 후, IB 도입의 과정에서 생겨날 문제점들의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 IB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도입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사교육걱정은 이미 2차에 걸친 IB 점검 토론회에 대한 결산의 의미를 갖고 관련 문헌, IB 측의 자료, 이전 2회 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입장 및 제도 도입 추진 교육청 측의 의견 등을 참고해 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영역) IB 도입의 문제의식 타당성, ▲(제2영역) 도입 이전 예상되는 4가지 문제점(①대입 경쟁의 부담, ②사교육 증가 부담, ③학생들의 학습 부담, ④특권학교의 특수 교육과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점검, ▲(제3영역) 교육과정(교육목표, 수업방법 및 평가체제)의 적절성, ▲(제4영역) 소요 재정의 적절성, ▲(제5영역) 부작용 없는 현실 안착 가능성, ▲(제6영역) IB에서 KB로의 전환 타당성 등

■ 6영역 29개 요소별 평가 결과 : A등급 7개, B등급 3개, C등급 8개, D등급 9개, E등급 2개

위의 7개 영역 29개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1] 요소별 평가 결과

(※A: 매우 좋음, B: 좋음, C: 보통, D: 좋지 않음, E: 매우 좋지 않음,  
회색 박스: 중요한 요소인데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을 의미함)

영역	내용	중요도	평가
제1영역 : 도입 문제의식 (문제의식 타당성)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	A	A
	4차 산업 등 국가 미래를 대비	A	B
	논술형 시험으로의 평가 체제 전환	A	A
	대학입학제도의 개선 가능성	A	A
제2영역 : 도입 전제	사교육 부담을 추가적으로 유발하지 말 것	A	D
	대입 경쟁을 악화시키지 말 것	A	C
	새로운 고입경쟁을 만들어 내지 말 것	A	D
	무의미한 과도한 학습 부담을 키우지 말 것	A	B
	계층별 교육 양극화 조장 말 것	A	C~E
제3영역 : 교육 과정 + 평가 체제	목적	B	C
	교육목표/교육목적/추구하는 인간상	B	A
	교수학습방법	B	A
	핵심(Core) 교육과정	B	D
	교과교육과정의 틀	B	C
제3영역 : 교육 과정 + 평가 체제	교과 교육과정	B	A
	영어 몰입교육의 부담	A	E
	국적있는 교육과정과 IB의 공존 가능성	A	C
	수업에 사용할 교재	B	C
	평가(내신+외부평가)	A	B
	채점의 질 관리 담보 대책	A	A
제4영역: 프로 그램운영	연수 강사 양성 과정의 적절성	A	D
	연수를 통한 교사의 변화 가능성	A	D
	프로그램의 관리자 양성	B	E
	재정	A	D
제5영역: 현실 안착 가능성	법률적 과제	B	C
	IB 이수 학생을 위한 공정한 입시 가능성	B	C
	IB 이수 학생을 위한 전형이 생길 경우의 대책	A	D
	국민의 공감대 형성	A	C
제6영역:IB→KB 로의 전환 전략	IB→KB : 시범운영 후 제도화. 제도화의 수준은 부 분 도입, 현 수능을 대체한 전면 도입 중?	A	D

이번에는 평가 학점별로 유사한 영역을 묶어서 제시하면 A등급 7개, B등급 3개, C등급 8개, D등급 9개, E등급 2개로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 평가 학점별 주요 항목

평가 학점	주요 항목
A(매우 좋음)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 가능성, ▲논술형 시험으로의 평가 체제 전환,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이라는 취지, ▲교육목표/교육목적/추구하는 인간상의 적합성, ▲교수학습방법과 평가의 혁신 가능성, ▲교과교육과정, ▲채점의 질 관리 담보 대책
B(좋음)	▲4차 산업 등 국가 미래를 대비할 정책인가 여부, ▲과도한 학습 부담 시비가 없을 것,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조화된 평가체제
C(보통)	▲대입 경쟁의 심화 가능성 여부, ▲세계시민의 육성이라는 교육 목적, ▲교과 교육과정의 틀, ▲국적있는 교육과정과 IB의 공존 가능성, ▲수업에 사용할 교재의 확보 정도, ▲법률적 과제 개선 가능, ▲IB 이수 학생을 위한 공정한 입시 가능성, ▲국민의 공감대 형성 여부
D(좋지 않음)	▲사교육 유발하지 말 것, ▲새로운 고입경쟁을 만들어 내지 말 것, ▲계층별 교육 양극화 조장 말 것, ▲핵심 교육과정의 현실성, ▲연수 강사 양성 과정의 적절성, ▲교원 연수를 통한 교원 역량 강화 가능성 여부,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재정의 확보여부, ▲IB 전형이 생길 경우의 대책 ▲IB→KB로의 전환 가능성 성
E(매우 좋지 않음)	▲프로그램의 관리자 양성, ▲영어 몰입교육의 부담 여부

즉 위의 평가 결과를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제1영역)이나 교육과정(교육목표, 수업방법 및 평가체제)(제3영역)은 대체적으로 타당하고 교육청이 시범 운영 형태로 지원하는 소요 재정(제4영역) 역시 적절합니다. 그러나 도입 이전 예상되는 4가지 문제점(제2영역)(■대입 경쟁의 부담, ■사교육 증가 부담, ■학생들의 학습 부담, ■특권학교의 특수 교육과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깊이 고민해야하며, 입시와 잘못 연결하면 현실 안착의 과정(제5영역) 속에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IB에서 KB로 전환하는 과정(제6영역)이 명료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현재로서는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 중요 세부 영역에 대한 평가: 재정, 제도도입의 선결 과제 점검, 교육과정의 문제

위의 평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영역(소요 재정의 적절성 및 도입 이전에 예상되는 4요소) 및 한국의 국적있는 교육과정의 요구가 IB 교육과정 속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입장을 소개합니다.

△ 소요 재정 : 매년 3,400만원 지출, 혁신학교보다 적으나, 적용 학생 협소.

IBDP 도입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 IBO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총 3~4개 영역 ▲회원 학교 승인비, 회원(후보) 학교 연회비/회원학교 승인비 ▲교사들 연수비 ▲학생의 IB 응시료로

구성됩니다. 이 항목 기준을 따라 지출 내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도입 후 단위 학교 당 일시 지출 비용은 5,700만원이 소요되며, 매년 고정 지출비용(도입 후 4년차부터)은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표-3] IB 도입의 과정에 소요되는 학교별 비용

재정 지출 영역	내 용	연간 정액 지출비	일시적 지출비	비고
제1영역	회원(후보) 학교 연회비	5,000만원 (5년간)		후보학교단계+인증학교단계
	회원학교 승인비		2,500만원	
제2영역	교사들 연수비 (한 학교 40명)		3,200만원	최소 비용
제3영역	학생의 IB 응시료 (1개반 20명)	4,800만원 (2년간)		도입 후 4년째부터 발생
제4영역	기타: 한글 번역비		?	
총계		9,800만원 (5년간)	5,700만원	
		<b>합산 : 1.55억원(5년간)</b>		

IB 시범학교의 5년간 지출비 1.55억을 연간 평균 비용으로 나눌 때 추정치 3,100만원은 혁신학교 예산 지출비 5,050만원과 비교할 때 적어도 여타의 시범학교나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소수의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시범 도입하고 그 경우에도 특정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아니라 1-2개 반에만 적용될 경우, 소수의 학생만 혜택을 입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4대 선결 요소 충족 여부: 부유한 사립고나 특목고/자사고의 IB 확대 및 현 대입전형으로 진입할 경우, 입시경쟁 완화, 사교육 경감, 특권교육 - 교육양극화 억제에서 낮은 점수**

IB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검토할 때, 그 부작용이 IB 시범 도입 이전에 미리 점검할 영역과 시범 운영을 거쳐야 그 부작용이 확인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시범운영 단계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다음 4가지 영역은 반드시 시범 운영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표-4] IB 도입의 4대 선결 요소

제1요소	입시 경쟁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 것
제2요소	사교육 부담을 더 늘리지 않을 것
제3요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
제4요소	특권학교 트랙이 되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

또한 위 4요소의 저축 여부를 검토를 할 때, IB 제도 도입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시범운영 단계) 일부 교육청의 시범 운영 단계, ▲(제도화 1단계: 현 대입제도 적용) 현 대입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속에 IB를 허용하는 새 트랙을 만들어 적용하는 단계, ▲(제도화 2단계: 현 대입제도 적용) 현재의 대입제도가 한국식 국가 논술 시험(즉 KB)에 의해 완전 대체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5] 도입의 과정에 따른 점검 요소 평가

	시범운영단계	제도화 1단계- 현 대입 제도에 IB전형 도입	제도화 2단계 - 현 대입제도가 KB로 대체
입시경쟁 심화 금지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새로운 특권학교가 생길 경우 고입 경쟁이 격화되며, 대입 과정의 복잡성이 심화됨.	내신과 수능이 통합될 경우 전형 요소가 단순화되어 준비 부담은 다소 완화되나 대입 경쟁은 여전함.
사교육 추가 유발 금지	몇 개 소수 학교에 국한된 경우엔, 사교육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기존 고입 사교육에 새로운 IB형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 부담이 추가되며, 영어 몰입 교육에 따른 영어 사교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입 영어 시험이 영어 논술형으로 전환됨으로 영어 사교육 부담은 심화될 것임. 이것은 논술형 시험이 갖는 한계임. 기존 문제풀이 암기식 사교육이 논술형, 사교형 교육 사교육으로 대체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일 것
무의미한 학습 부담 가중 금지	현재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내신 대비와 함께 IBO 주관의 외부시험을 준비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높아질 것임.	학습의 부담은 현재와 동일할 것이나, 학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특권학교 트랙→ 교육양극화 심화 금지	현재 교육청의 도입 방향으로 볼 때 특권학교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으나 학교 내의 상위권 학생 특별반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교육청의 시범학교와는 관계없이, 재력 있는 사학의 IB 교육과정 채택 확산 정도에 따라 특권학교 트랙 부상 가능성.	대입에서 IB 전형을 수용하는 순간, 교육청의 시범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 사립학교 등의 대거 IB 학교로의 전환으로 새로운 특권학교 고착 가능성 있음.	기존 대입제도가 국가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될 경우, 모든 고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권교육을 통한 교육 양극화는 크게 심화되지 않음.

△ IB 교육과정 속에 한국적 교육과정(국어, 지리, 한국사, 세계사 등)의 수용 가능성 여부 : 충돌되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IB는 외국의 국제 교육과정인데 한국의 국적있는 교육과정(한국사, 지리, 세계사, 국어 등)의 필요와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과 관련해서 IB 교육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과목은 우리나라의 작품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IB에서는 번역된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작품 선택의 자율성은 보장되어 있어서 IB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작품을 선택해서 배우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사는 공통과목이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IB에서는 역사 자체가 선택과목이라, IB는 2년제로 운영되기에 운영 학교의 선택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 한국사를 공통으로 배우고, 2,3학년에서 세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반드시 공부해야 하지만 IB의 경우 외부 시험에서 '한국사'를 거의 출제하지 않으므로, 1학년 때 한국사를 따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한국사 공부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정 주제와 관련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는 IB의 세계사 시험 문제 유형을 볼 때, 한국사 지식이 세계사 시험에 일정한 정도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한 것보다는 IB 교육과정이 한국적 교육과정 정신과 충돌되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 IB 교육과정에 대한 우리의 잠정적 판단 : KB 내지 한국형 국가논술 시험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방향 여부에 따라 IB 도입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임.

위의 평가표에 근거해 볼 때, 중요한 과제인데 정책 도입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할 사항으로서 IB측의 문건이나 토론회 발제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IB 도입 이전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IB 시범 운영 관련해 확인해야할 부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엇을 위한 시범운영인지를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배우는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은 의미 있겠지만 단순한 목표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IB가 갖는 종합적 의미를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나아가 IB를 KB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범 운영 도입이라면 그 관점이 교육청에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교육청은 제도 확대 여부와 무관하게 당분간은 재정비용을 단위 학교 학부모들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마땅히 그래야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IB의 모든

교육적 타당성은 근거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후지역 학교 중심 시범운영 이후가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시도를 함으로 현재 대입 제도 속에 진입하는 빗장이 열려져 제도가 보완되고 법률이 개정됨과 동시에 시범 운영은 선출직 교육감의 변화 혹은 재정의 한계로 언젠가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 공립학교는 단 1개 학교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열린 공간으로 자사고 국제고 영재고 특목고 등 재력이 있는 사립학교들이 들어와 이 제도를 국내 국외 우수 대학 진출을 위한 통로로 활용할 경우, IB 도입의 부작용은 상상 외로 심각할 것입니다. 이미 학교 자율적 결정으로 맡길 때, 현재 상태에서 삼성이 투자한 충남삼성고나 대기업형 사교육업체(대교)가 설립한 경기외고 등이 이 일에 뛰어난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열린 공간으로 정부나 교육청 지원이 멈추는 순간 공립 일반학교는 들어올 수 없고, 재력이 되는 개발 학교들이 치고 들어와서 전체 교육 생태계를 교란시킬 때, 그로 인한 또 다른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칫 지금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범운영 학교는 그런 특권 귀족학교 출현을 위한 비단길을 깔아주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B를 현 대입제도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형 국가논술시험이 현재의 수능을 대체할 전망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KB 전략이 없이 제도화되면 IB는 가장 심각한 형태로 악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KB 전략은 지금 충분치 않고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3. 시범 운영 과정이라도 6개 교과에서 영어 과목과 예술 등 과목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인 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듣고 일정한 정도의 대입시 IB 시험 성적을 내려면, 고액 영어 학원 수강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 고액 사교육 유발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4. IB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결국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이 국제사회 우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교육과정입니다.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역사와 철학, 신념, 얼을 통합적으로 녹여낸 것으로서, 다른 외국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보편적인 가치나 영역도 있지만 그 나라의 특수한 가치나 영역도 있다고 볼 때, IB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인재상이 실제로 얼마나 한국인다운 것과 국제적 마인드를 갖는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지에 대해서 적합성 검토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IB로 한국의 수십 년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면서 미래사회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IB의 장점을 흡수하려는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치밀하게 따져서 어디까지 공존이 가능하고 어디서 부딪히는지 면밀히 따져서, 그 부딪히는 영역과 관련해 무엇을 어디까지 지키고 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논의가 끝나야 시범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험 운영 단계에서 매우 치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5. 교과 교육과정 중 국어, 국사, 지리 등 역량 있는 국민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국적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긴요한 교과 내용의 가치가 IB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훼손되지 않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검토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갖고 따져보면,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등과정이 문제인데, 그 경우에라도 한국사 등은 IB 운영학교에서도 고1에 가르칠 수 있기에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IB 교육과정과 한국의 교육과정과의 병존은 적어도 한국사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사 외에 ‘세계사, 지리, 국어, 영어’ 등에서 적어도 IBDP 고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인문 교과와 IB 외부 시험과의 관계 및 가치 충돌 가능성은 보다 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합니다.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이나, 현재로서 우리에게 일부 자료 외에 참고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6. 교사 교육 문제 : IB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끌고 갈 교사 인력이 과연 3일의 연수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이 논술형의 ‘꺼내는 교육’에 이미 익숙한 상태에서 IB의 교육과정을 익히는 짧은 기간의 기본 연수만으로도 바로 수업할 자질을 갖추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논술형의 평가와 ‘꺼내는 방식’의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뼈 속 깊이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 및 주어진 지식을 내면화 시키는데 익숙한 대다수 교사들이 학생들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꺼내는 교육’에 익숙한 인간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꺼내는 교육’의 맛을 보고 기존의 ‘집어넣는 교육’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며칠의 연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경험이 그 세계 속으로 일정 시간 몰입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교사들이 ‘꺼내는 교육’ 패턴을 학생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방식으로 이 수업을 대비할 할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로 경기외고 등에서 ‘꺼내는 교육’의 교사는 내국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 교사들을 짧은 시간 연수를 통해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깊습니다. 교사들이 IB 교육과정을 제대로 소화해주지 못할 경우, IB의 교육과정이 IB 외부 시험과 맞물려 국제 수준의 우수 대학의 입시 요구를 맞추어야 할 경우,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기존 사교육 시장에 이를 의존하게 되어 결국 고액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7. 사교육 문제 및 입시 경쟁 : 시범운영 과정 속에서 영어 사교육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교과 및 2개 과목을 영어 몰입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는 IB 교육과정 및 국가 논술 교사의 영어 시험을 영어 논술 필기시험으로 치러야 하는 바, 이는 기존의 영어 읽기와 듣기 시험 보다 학습 강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MB 정부에서도 말하기와 쓰기를 반영한 영어

NEAT 국가시험을 도입하려했으나, 심각한 국민적 우려로 이를 취소한 전례로 비추어 볼 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사교육비 총량 관련, KB로 전환될 때 그 총량이 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논술형 사교육으로 사교육 시장이 재편될 것이며, 이런 사교육은 기존 객관식 정답 찾기 사교육보다는 나은 측면은 있습니다.

8. 정부와 교육청의 논의를 통한 KB 대책 : 정부와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KB로의 전환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시범 도입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풀뿌리에서 새로운 학교를 만든 다음, 정부를 압박해서 KB를 만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대가 성공할 것인가의 문제, 나아가 이행 전략이 없으면 막연하고 나중에 KB가 안되고 다만 특권학교 측에서의 특권교육트랙으로만 확산될 때가 큰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 그냥 입시에 유리한 학교, 질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단순한 의도입니다. 이렇게 IB 학교가 늘어날 경우 해당 학교의 학부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제도화를 요구할 것이며,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사교육 부담, 특권층 교육과정, 국적 있는 교육과정 문제 시비에 휘말리면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사교육걱정의 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

사교육걱정의 위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해정 소장은 사교육걱정의 발표에 대해 그동안의 수백회의 토론회 중 가장 진정성과 노력이 느껴지는 평가 분석 자료였다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해 준 것을 감사해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각각 항목들에 대한 반론과 보충설명을 하면서(토론회 자료집 참고), 사교육걱정에서 우려하는 지점들은 대체로 교육청 단위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거나, 수립되고 있는 중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로의 전환 문제는 매우 필요한 일이나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져야 할 일이며 이번 도입을 마중물 삼아 국가교육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평가체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공동대표는 국가시험이 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언급하면서 다만 사교육걱정없는이 지적인 제도도입의 선결 과제 등 지적 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과 확산의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려했습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신성호 연구위원은 도입에 대한 사교육걱정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추가로 KB의 도입은 IB 시범도입의 과정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교육개혁을 외국의 교육제도에서 이식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혁신학교의 혁신교육이 공교육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교육청의 고영실 장학사는 IB 도입에 따른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IB 교육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윤준 장학사는 교육청의 도입과정에서 특권학교의 형태도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며, 교육청의 도입목적은 교수학습 개선을 통한 교육불평등 해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상세 분석의 과정을 거친 후, IB 도입의 과정에서 생겨날 문제점들의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 IB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2019. 5.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